

더넓은 무대 위해, 디지털콘텐츠사업자 결집에 '올인'

글 / 박성찬 다날 대표 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의장



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날을 언급할 때 벨소리업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한다.

현재 다날이 영위하는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커머스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콘텐츠 사업은 이미 벨소리 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으며 매출비중에 있어서도

벨소리가 최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돌이켜보면 다날이 4화음 벨소리를 만들며 본격적인 무선인터넷용 콘텐츠를 제공할 무렵에는, 이동통신사들의 SMS 서비스로부터 시작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인 하나의 사업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무선인터넷을 통한 뉴스, 날씨, 주식,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던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음으로써 최근까지도 모바일콘텐츠 하면 가장 먼저 벨소리를 떠올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DC산업 숙원극복의 주체는 사업자 자신

최근의 무선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단말기의 성능 또한 이른바 컬러폰, 카메라폰, 캠코더폰, MP3폰 등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뤄 과거 유선인터넷으로만 얻을 수 있었던 모든 형태의 콘텐츠들을 무선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로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벨소리가 더이상 모바일콘텐츠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그 콘텐츠를 담은 그릇들이 엄청나게 커져있으며 그 그릇에 담긴 콘텐츠 역시 그에 맞춰 다양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이미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해 올해 시장규모는 3조8,43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모바일로 범주를 국한시키지 않은 디지털콘텐츠는 국내시장의 경우만도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와 수요의 증대로 2010년까지 24조7,000억원 규모로 매년 평균 32.8%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성장의 본 궤도에 올라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업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주체는 당연히 국내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이며 개개 업체의 성장노력에 더해 산업공동의 현안을 제시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내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대표단체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연합회)는 지난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협회구도를 정립하면서 국내 디지털콘텐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래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올 한해 주력할 사업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국내 유무선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표적인 단체로, 회원사의 권익증진 및 관련현안에 대한 해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에 맞는 회원사의 협회로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운영중인 각 단위협회별 이사회 등을 회원사 CEO 포럼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회원사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제휴 등을 유도해 회원사 상호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이동통신사,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진

“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업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주체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이다.”

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주요 업계 현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신규 서비스 분야의 출현으로 풀어야 할 이슈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실정에 맞춰, 회원사 소속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및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해외 마케팅 포럼을 운영,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 수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수립을 진행할 방침이다.

성장 원동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역량 결집해야

연합회의 주체는 회원사이며 소속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자극히 당연한 명제로,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와 연합회간 공동체 의식을 갖고 회원사의 발전과 더불어 연합회의 발전을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사에 의한 협회가 또하나의 모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째, 무선인터넷콘텐츠 검증기관으로서 콘텐츠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자율규제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통한 무선인터넷산업의 활성화를 이뤄갈 것이며, 둘째, 업계 현안인 음악저작권 문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행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특별위원회를, 회원사만이 참여하는 구도가 아닌 저작권 권리자 및 권리자 단체까지 참여토록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상암동 DMC내에 회원사가 대거 참여하는 디지털콘텐츠 전문 R&D 센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연합회는 회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명실상부한 디지털콘텐츠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제

고하고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별도의 시장조사팀을 신설해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의미있는 통계자료를 회원사에 제공할 것이다.

둘째로, 무선인터넷 망개방과 관련된 이동통신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과 협력해 무선 망개방 관련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며, 무선망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망개방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무선인터넷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로, 모바일 테스트베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수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업체의 해외수출용 우수 모바일콘텐츠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회수대행수수료 문제 등 업계가 수년간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 연합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중인 지상파 DMB 등 신규서비스 분야 개척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며, 우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국기술투자(KTIC)와의 제휴를 통해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과의 제휴를 통해 우수 모바일콘텐츠 시상 등을 마련함으로써 회원사의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체들이 당면했던 현실은 때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미비로 혹은 거대기간사업자들의 사업논리에 밀려, 혹은 영세한 자체규모의 한계에 수없이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등을 비롯한 주변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차세대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자부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회원사들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더 넓은 무대를 기대해 보자. 